

'생명줄' 뒷좌석 안전띠 아직도 안 매세요?

교통사고 줄임시다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상> 안전벨트는 '생명띠'

지난 5월1일 오후 영암에서 발일을 하고 귀가하던 노인을 태운 25인승 미니버스가 영암군 신북면 도로 아래로 추락해 8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발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노인 14명과 운전자 등 총 15명이 타고 있었다.

특히 버스에 탑승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고된 발일로 몸이 피곤해 잠이 들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까지 법으로 규정된 모든 도로에

착용 땀 사망위험 15~32% 감소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도

한국 뒷좌석 착용률 22% 불과

OECD국가 90%대와 대조

어렸을 때부터 습관 들여야

서 일반 차량 및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돼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 어린이 6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 등을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위험이 75% 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으며 차량 탑승객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매년 전국적으로 3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1981년 국내에서 첫 도입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상당 수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17년 OECD-IRTAR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도로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앞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 88.5%, 뒷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30.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독일은 앞좌석 착용률 98.6%, 뒷 좌석 착용률은 99% 달했으며 뉴질랜드,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가 90%가 넘는 높은 안전벨트 착용률을 보였다.

또 경찰청의 '좌석안전띠 효과성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뒷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만 착용해도 본인의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안전벨트는 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리의 생명줄이다"며 "운전자는 반드시 전 좌석 동승자의 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빠른 정착을 위해선 홍보와 계도 등 국민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청 1층 광주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는 송서영(여·28) 안전감사는 "5~13세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버스에 탑승해 급정거 시 몸이 쏠리는 과정 등을 통해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기자 young@kwangju.co.kr

음주운전 '탈선 경찰들'

광주서 잇따라 적발... 단속 불응 도주하기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찰 간부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함께 내년 1월말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예고했지만 경찰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는 경우마저 있는 실정이다.

12일 광주서부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할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북부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8일 밤 11시 25분께 서구 덕동동 유덕동계곡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자인 혈중알코올 농도 0.073%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 중인 경찰을 지나쳐 남구 봉선동 용산터널까지 17km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뒤늦게 순찰 차량에 의해 봉선동의 한 교차로에서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일 밤 1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 상태로 운전한 북부서 소속 B(51) 경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B경위는 신호를 위반한 1t 트럭 차량과 사고가 나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었다.

/김희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객실 침입 손님 성추행에 폭행까지... 모텔종업원 징역형

객실에 침입해 손님을 성추행하고 CCTV 확인을 요구하는 일행을 폭행까지 한 모텔 종업원이 살해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0시 24분께 자신이 일하던 광주의 한 모텔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B(여·39)씨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함께 투숙한 일행이 객실에 누군가 침입한 사실을 알고 쫓아 나와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카운터 전화기를 40시간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집주인 병원 입원 틈타

빈집털이 50대여성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12일 병원에 입원한 집주인 집에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여·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8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A(여·72)씨의 집 안방 옷장에서 금목걸이 등 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일 오후 4시께 영광군 범성면의 지인 집에서 4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8월 출소한 김씨는 A씨의 집에 세들어 살며 A씨가 병원 입원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퇴원한 A씨가 귀금속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영광의 지인 집으로 도주했고 또다시 지인의 물품을 훔쳤다.

/김희희 기자 kimyh@kwangju.co.kr

택시비 3000원 카드 결제 실랑이하다 손님 폭행한 기사

상대방

○...택시비 3000원 결제 때문에 손님과 다투다 택시를 잡은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서행.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65)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변에서 승객 B(26)씨의 택시를 잡고 어깨를 밀

치는 등 폭행했다는 것. ○...당시 A씨는 B씨가 준 카드 3000여원의 택시비 결제를 시도했지만 카드 인식이 잘 되지 않아 수차례 시도하며 실랑이를 했는데,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민원을 넣겠다며 택시 번호를 적자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

/김희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내버스노조 삭발 시위 12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임원들이 광주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시행과 비정규직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삭발 시위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숙명여고 "쌍둥이 0점 처리·퇴학 결정 절차 진행 중"

숙명여자고등학교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문제·정답을 사전에 받고 시험을 봤다는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들의 퇴학과 성적 '0점 처리'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숙명여고는 12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번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의견을 거쳐 A씨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과 퇴학을 결

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숙명여고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사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 시작하는 마

음으로 입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께 심려를 끼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은 쌍둥이 성적을 0점 처리한 뒤 이들과 함께 시험 본 다른 동급생 성적까지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질량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회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 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펜션건물 맞춤형자신 시공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www.blog.naver.com/waterproof01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목포 (061)683-0485
여수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